

시멘트로 덮어버린 '생태 등산길'

담양 병풍산~삼인산 6.18km
경관 아름다워 등산로 각광
담양군 평장임도 보수 공사
등산객 "아름다운 길 망쳐"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담양군이 지역주민에게 등산로로 애용되는 임도(林道·임산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은 산림경영관리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등산객들은 환경·생태 파괴라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12일 담양군과 삼인산 등산객들에 따르면 담양군 대전면 평장리에서 행정리까지 병풍산과 삼인산을 잇는 평장임도 6.12km가 개설돼 있다.

임도는 산불 진화·병해충 방제 등 산림경영관리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도로다. 대부분의 임도는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정비가 잘 돼 있어 등산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평장임도는 거리가 짧고 주변경관이 수려해 등산객과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최근 담양군은 흙과 자갈로 잘 다듬어진 이 임도를 총 사업비 6900만원을 들여 시멘트 포장도로로 바꿨다. 산사태와 홍수 등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등산객들은 환경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양군이 생태 도시를 내세우면서 주변환경이나 이용객들의 정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경 파괴적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멘트 포장은 눈이 올 경우 빙판길로 변해 사고 위험을 더 키운다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비탈길 시멘트 포장은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어느 길이 인간과 자연을 위한 '길'일까. 담양군 병풍산 임도는 자갈과 흙으로 이뤄졌었는데 최근 산림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구간(오른쪽 사진)은 시멘트로 포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담양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린 등산객 신일섭 씨는 "삼인산 등산을 친구와 함께 했는데 등산로를 파헤치고 시멘트 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며 "흙과 자갈이 깔려있던 등산로를 해집고 시멘트로 뒤덮어 삼인산 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망가뜨렸다"고 비난했다. 신씨는 이어 "기존 등산로는 대부분 잡석이 깔려 있어 미끄럼 방지와 토사 유출 방지 효과가 있었는데 시멘트로 포장돼 겨울철 등산 위험만

높았다"고 주장했다. 등산객들은 인근 지자체의 등산로 등산관리와 비교하면서 담양군의 산림행정을 질타했다. 화순 만연산 중턱 등산로 경우 시멘트 포장 없이 방부목과 마포를 깔아 자연친화적 산책길을 조성해 지역민과 등산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다. 김세진 광주생명숲 사무처장은 "설계부터 현장을 고려해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

리의 편의성만이 강조돼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시멘트 포장을 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이 공사는 산림관리상 꼭 필요해 진행된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다. 시멘트 포장과 함께 배수를 위한 수로를 설치해 산에 도움이 되도록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 보다 더 친환경적인 산림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죽산보 녹조 급증...올 첫 수질예보 '관심' 발령

환경단체 "수문 전면 개방을"

영산강 죽산보(나주시 다시면) 구간에 녹조가 번져 올 여름 첫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지자 환경단체가 "수문을 전면 개방해 강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영산보 죽산보 구간에 수질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죽산보 남조류 개체 수는 지난달 29일엔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지난 5일 채취한 물을 분석한 결과 8일에는 ㎍당 4만3150개(cells)로 급증했다.

조류는 크게 규조류, 녹조류, 남조류, 기타조류로 구분된다. 이들 조류는 수생태계 먹이사슬의 일차생산자로서 산소를 공급하고 동물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남조류 중 일부는 독소(간 독소, 신경독소)물질을 배출하는 등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게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남조류 일부는 냄새물질을 배출해 강의 심미적 기능도 떨어뜨리고 있다.

수질예보는 남조류 개체 수나 클로로필-a 농도에 따라 평상·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로 나뉜다. 수질예보의 기간은

통상 7일이다. 남조류 세포 수가 1만cells/㎖를 초과하면 클로로필-a 예측농도와 관계없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지난해에는 6월 16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15일간 그해 여름 첫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지난 2015년에는 8월 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여름철 첫 수질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1일 죽산보가 수문 상시개방(평소보다 1m 수위를 낮춤)에 들어갔으나 되레 여름철 수질예보 발령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셈이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가뭄과 이른 무더위 등 최근 기상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최근 비가 와서 이번 주중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죽산보 구간은 8일 이후 계속 관심단계 발령 중이며 12일 채취한 물을 바탕으로 내려질 13일 예보에서 관심단계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산강 죽산보 수질 관심단계 발령은 예견된 현상이며, 승촌보(광주 남구) 구간도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승촌보, 죽산보 수문 전체를 완전히 상시 개방하지 않고서는 녹조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어도 및 양수 시설을 보완한 후 보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7, 해질 19:48, 달뜨기 22:30, 달지기 08:19

목마른 대지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16/28	보성	구름많음	12/25
목포	구름많음	16/26	순천	구름많음	15/26
여수	구름많음	17/24	영광	구름많음	14/27
나주	구름많음	13/27	진도	구름많음	15/25
완도	구름많음	16/25	전주	구름많음	16/26
구례	가끔 흐리고 비	12/27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구름많음	14/26	남원	가끔 흐리고 비	14/26
해남	구름많음	14/26	홍산도	구름많음	15/21
장성	구름많음	13/27			



바다 날씨

지역	파고(m)	오전		오후	
		동~남동	서~북서	동~남동	서~북서
서해	0.5	0.5	0.5	0.5	0.5
남부	0.5~1.5	0.5~1.5	0.5~1.5	0.5~1.5	0.5~1.5
남해	0.5~1.5	0.5~1.5	0.5~1.5	0.5~1.5	0.5~1.5
서부	1.5~2.5	1.5~2.5	1.5~2.5	1.0~2.0	1.0~2.0
남부	1.0~2.0	1.0~2.0	1.0~2.0	1.0~1.5	1.0~1.5

생활지수

경고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	☀	☀	☀	☀	☀	☀
14/26	16/30	17/31	18/31	19/31	19/32	19/32

광주 수족구병·뇌수막염 주의보

엔테로바이러스 31건 '양성'...손 잘 씻어야 예방

유아에게 수족구병과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주의보가 광주지역에 내려졌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영·유아에서 바이러스 성 수막염과 수족구 등을 유발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병·의원 소아과 내원·입원 영유아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231건 중 31건(13.4%)이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

양성 반응률은 1월 7.7%를 시작으로 2월 8.1%, 3월 3.7%, 4월 4.0%로 감소세를 보이다 이른 더위가 찾아든 5월에 34.4%로 치솟았다.

건수도 1월 2건, 2월 3건, 3월과 4월 각 2건이던 것이 5월에는 22건으로 폭증했다.

대부분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10월 까지 유행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감염될 수 있지만 주로 위생관념이 없는 3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한다.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침이나 가래, 콧물 등)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 장난감 등을 통해 몸안으로 전파된다.

기회영 수인성질환과장은 "감염된 아이와 접촉을 피하거나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교육청, 대선 공약 13개 사업 선정

광주시교육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13개 사업을 선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대통령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가운데 교육 관련 공약을 분석, 167개 사업을 발굴하고 13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중점 과제로는 ▲교육부 권한 시도교육청 이양 ▲중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편 ▲공교육 혁신·사교육비 경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학비리 근절 등을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는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다. /김지우기자 dok200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

우리집 전기는 만들어 쓴다 3,060W

가정용 태양광

시중가 ~~600~650만원~~

4만7천원부터

농협 업무자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도 전기요금 걱정하세요!

경시지붕형
주차장형
슬라브형

주택, 상가, 교회, 유치원, 모텔, 펜션(9kw까지 보조지원)

Hanwha Q CELLS 한화큐셀

LG 전자모듈 25년 효율보증 12년 무상A/S

현대솔라

미세먼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해가온에너지

1588-1543

상담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06(해가온빌딩 1층)